

11. 열왕기(상·하)

열왕기는 다윗 임금의 말년부터 바빌론 유배 초기까지 임금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솔로몬은 본디 후계자의 자격에서 밀려나 있었지만 하느님의 뜻에 의해 형들을 제치고 왕위에 오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과 봉헌은 솔로몬 통치의 최고 업적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느님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 사랑이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 들였고 산당의 제사를 허용했습니다. 특히 말년에 그는 하느님에게서 완전히 멀어져갔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들, 곧 지혜와 부와 명예를 주님을 드높이고 주님의 백성을 돌보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과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솔로몬의 실정과 불충은 결국 통일 왕국이 둘로 쪼개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하브암이 왕위를 계승하자 유다와 벤야민 지파를 제외한 북쪽에 거주하던 열 지파가 예로보암과 함께 찾아와서 세금 감면을 요청합니다. 그동안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 군사력 강화 등을 위해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낮춰 종의 본을 보이라는 원로들의 조언 대신 처음부터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친구들의 조언을 따르자 예로보암은 북쪽 열 지파로 북이스라엘을 세웁니다. 이어 민심이 남쪽 유다 왕국으로 기울어질까 염려하여 단과 베텔에 금송아지를 하나씩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이후 북이스라엘의 역대 임금들은 모두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200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왕조가 9번이나 바뀌며 20명의 임금이 다스리다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 왕국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백성들은 주변 여러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이때 히브리인들은 새롭게 이주해온 이방인들과 통혼함으로써 '사마리아인'이라 불리는 혼혈족이 생겨났습니다.

340여년 지속된 남유다는 총 20명의 왕들 중에 8명만이 하느님으로부터 '선하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남유다 역시 백성들이 지방의 산당들에서 제물을 바치는 것을 허용하는 등 북이스라엘 왕들과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히즈키야나 요시아처럼 종교 개혁을 단행한 왕도 있었지만 이미 만연한 산당 제사와 우상숭배의 폐습은 그 뿌리가 너무 깊어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결국 기원전 587년 바빌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두 왕국 모두 하느님을 거역하는 길을 걷다가 결국 멸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하느님께서서는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같은 예언자를 파견하여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열왕기의 주요 신학사상은 남북 왕국의 몰락과 파괴가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인 임금들의 실정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금지하는 우상숭배와 예루살렘 성전 이외의 장소에서의 경신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임금들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때, 그들의 정치적 수완이나 업적이 아니라 주 하느님께 대한 충성과 계명의 준수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또 다른 주요 주제는 다윗 왕조에 대한 하느님의 특별한 호의와 다윗의 후손들이 예루살렘에서 언제나 다스릴 것이라는 하느님 약속의 실현 여부입니다.